



### 자존심을 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양과 같고 같이 가진 것이라고는 겉과 같지 않다. 자존심에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큰소리를 친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툰다.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고 다시 그것을 허무는 데 남은 반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힘든 인생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어 자신을 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아득하기만 하다. 자신 안에 겉과 같이 쌓여두고 있는 자존심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없어진다. 결국 자존심이라는 장벽 하나 세우겠다고 발버둥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다. 필요 없는 담은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미 세워져 있는 담은 빨리 허무는 것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다.

자존심은 최후까지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최후적인 의식이다. 지금까지 세워오던 자존심을 버리면 내

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자존심을 버리는 방법은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좀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좀 늦으면 어 때라? 천천히 가는 법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출가분하고 편안한 길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이 우습게 들리고 정말 하찮은 인간이 거들먹거리며 하는 말이라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은 모자라는 것은 관습이지만, 예의가 없는 것은 안 된다. 예의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자. 겉치레 인사인지 정성이 담긴 인사인지 상대방은 바로 안다. 벋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속이 찬 사람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안다. 되지도 않은 것이 어른들을 만

나도 머리를 킁킁이 세우고 인사도 없이 지나간다. 반드시 허리를 구부러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 좋다. 말로만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가급적 웃는 얼굴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구부리며 인사하자.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준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상대를 높여 주어야. 인정해 주어야. 칭찬을 아끼지 마라.

나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자동차 판매 왕이 "어떻게 자동차 판매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한 일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언가 말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차를 추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돈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마라.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인색한 사람은 부모라도 그 자식을 싫어한다. 돈을 잘 쓰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 북은 짓는 것이 고 덕은 쌓는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그것은 꼭 돈이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빛이 난다. 그 자체로서 명품인생이 된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챙겨먹고 운동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유명 건강프로그램처럼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었어도 자발적인 행동으로 꾸준하게 목표를 두고 해야 성과를 내게 된다. 생활습관이 나를 강자로 만든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습관화 한다면 스스로 힘이 강해진다. 지금부터 준비해둔 듯지 않다.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시켜서 배출시켜주어 근력을 강화시켜준다.

**동작①:** 무릎을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허리를 펴서 행동으로 꾸준하게 목표를 두고 해야 성과를 내게 된다. 생활습관이 나를 강자로 만든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습관화 한다면 스스로 힘이 강해진다. 지금부터 준비해둔 듯지 않다.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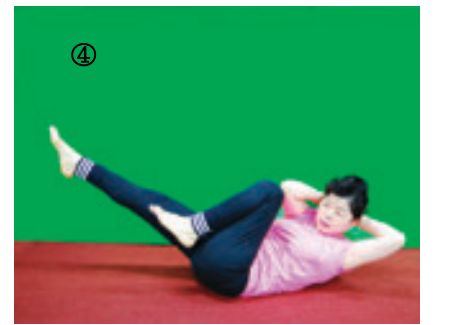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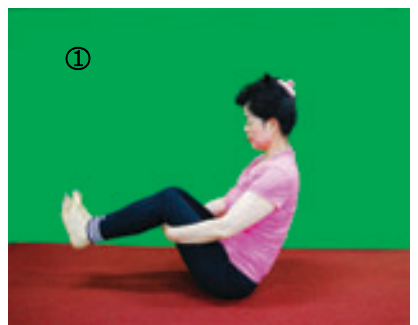
**동작②:** ①번 자세로 균형이 잡히면 천천히 손을 놓고 양팔을 뻗어 무릎을 펴준다. 힘달면 무릎 아래를 받쳐 중심을 잡아도 된다. 10초 유지 5회.

**윗배 아래배 트위스트 복근운동**  
효능: 누워서 안전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허리

에도 안정감이 있다. 복근과 내장 속 노폐물 제거, 장운동이 활발해져 독소 배출 효과적. 옆구리 군살 등 예쁜 몸으로 변신시켜 준다.

**동작③:** 누워서 양다리를 붙이고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올린다. 깎지 긴 손은 머리 뒤에 두고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올린다. 복부의 힘으로 유지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④:** ③번 자세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 닿도록 상·하체를 교차해서 만난다. 반대쪽도 한다. 양쪽 각각 10번씩 5회.\*



### 生而不有也

생이불유야

날아주되 소유하지 않는다

#### 도덕경 51장 해설

노자의 도를 공부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있어서다. 행복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원이 있다면 도덕경 속의 문장 하나하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여하 간에 도덕경의 진수를 얻고자 하는 공부도 종간을 넘어서고 있다. 자칫 타성에 젖은 문장의 앞에만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집중과 정진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도는 인간이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어머니(생명의 본체)다. 인

간이 품는 이상과 목적은 궁극에 행복(어머니 품에 안기고자)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리 수신하는 사람의 목표와 포부가 크고 넓어도 도를 통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때에 따라서는 정진이 잘 되지 않아 중도에 떠 생각할 수 있다.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 들고, 그 길이 요원하기도 하거나, 지금까지 도와 거리가 먼 생활 습성으로의 질기게 끌어당기는 마력(魔力)에 의해서 멀어질 계제다. 그러나 처음 세운 큰 뜻을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닦아온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초발심을 상기하여 사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마 이 장에서도 이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도와 덕의 핵심 의미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 준다.

망망대해를 항해해 본 사람은 안다. 현재 자신의 좌표가 정확히 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그 목적지에 최고로 단시일 내에 정확히 무사하게 도착한다는 사실을.

**道生之(도생지):** 도가 생명을 낳고

**德畜之(덕축지):** 덕이 기르고

**物形之(물형지):** 물질이 형성되고

**勢成之(세성지):** 세가 이루어지며

**是以萬物尊道而貴德(시이만물존도이귀덕):**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히 여긴다

**道之尊(도지존):** 도의 높음과

**德之貴也(덕지귀야):** 덕의 귀함은

**夫莫之爵(부막지작):** 억지로 떠맡

드는 것이 아니고

**而恒自然也(이항자연야):**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道生之(도생지):** 도에서 생명이 나와

**畜之 長之 遂之(축지 장지 수지):** 기르고, 자라게 하고, 길러 내며

**亨之 壽之(형지 독지):** 흥통하게 하고, 도탑게 하며

**養之 覆之(양지 복지):** 길러서 덮어 준다.

**生而不有也(생이불유야):** 날아주되 소유하지 않는다

**爲而不恃也(위이불지야):** 행하되 지키려 않는다

**長而不宰也(장이불재야):** 기르되 주관하지 않는다

**此之謂玄德(차지위현덕):** 이것을 일컬어 현묘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 허만욱 승사 칼럼

##### 구세주의 소재를 열쇠 없이도 찾을 수 있나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며 희생적이고 소상하고 넓은 사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데 반드시 양떼 즉 신미생으로 오신다. 양(羊)은 하나님의 상징인 동물인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한자는 하나님같이 양(羊)자를 곁들이고 있다. 선(善), 의(義), 미(美), 희(犧), 소상(昭詳) 이외에도 인간의 선망(羨望)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贈物)은 영생이다와 같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한자에도 양(羊)자가 곁들여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들이 가득한 영접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하고 이곳은 무한한 정보창고요 영혼의 공간이요 신의 마음이요 신의 공간이며,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주권세를 장악하고 계시는 구세주께서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완성하신 에덴동산의 주인공이시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과 함께 만민들이 애타계 기다리는 대망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도 존귀하신 신인 하나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마법의 황금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여기 그 열쇠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오늘날 신천신지의 개척자로 출현하신 구세주께서는 너무나 환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오셨다. 범인으로서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별천지의 신적 존재이다. 그는 순교자요 부활자요 완성자요 전지전능자이신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양자물리학 상 영접공간을 점유하고 계시는 영계(靈界)의 대왕(大王)이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에 다 능통하시다. 위 5가지 조항에 다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 바로 조희성님이시다. 이분 이아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참 주인공이신 정도령이다. 그는 영생의 길의 안내자요 진리의 본체이며, 곧 하나님이시매 결국 생명의 원천이시다.\*

###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6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31)652-6438  
이죽제단 : (031)672-6786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33-7866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광주제단 : (062)524-4555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금마제단 : (063)853-6673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